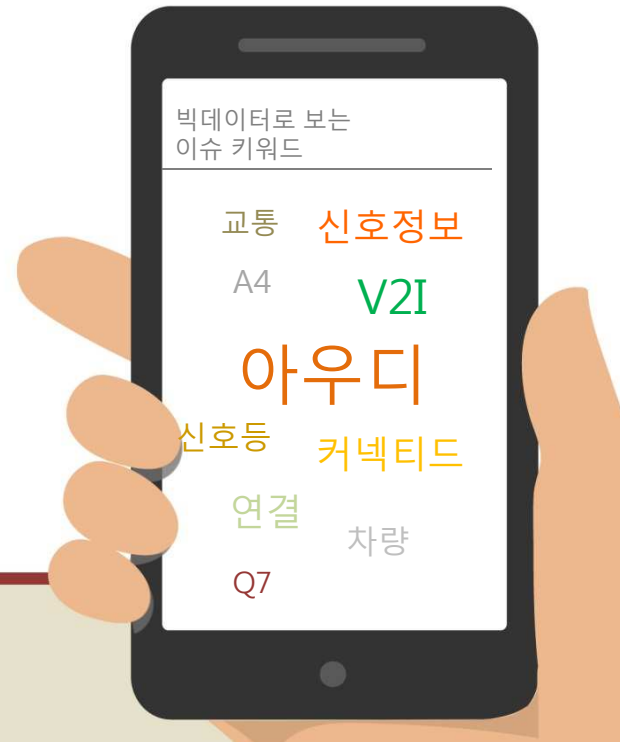


아우디, 신호등 정보 파악하는 V2I 통신 기술 선보여



아우디, V2I 통신 기술 도입

아우디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신호등이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V2I(Vehicle-to-Infrastructure)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의 통신 기술로, LTE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교통 통제 시스템이 신호등 정보를 포함한 주변 도로 상황을 차량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V2I 기술이 탑재된 아우디 차량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차량이 적색등에서 대기하는 경우 계기판의 화면에 녹색등으로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한다. 운전자들은 이를 통해 연비를 줄이고, 신호등 대기시간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는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2017년형 A4, Q7 모델에 V2I 기술을 탑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은 테스트가 완료된 미국의 특정 도시에서만 신호등 정보 파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다.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비스 출시 계획은 미정이다.

발전하고 있는 '아우디 커넥트' 시스템

아우디는 연결성(Connectivity) 분야에서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우디는 2010년부터 온라인 연결을 통해 날씨 및 지도, 주유소 위치, 온라인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아우디 커넥트(Audi Connect)를 시행 중이다. 또한, 2014년에는 완성차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4G/LTE 광대역을 자체 시스템에 접목하는 등 차량과 운전자, 주변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관점의 시사점

V2I를 비롯한 '연결성' 분야 연구 필요

아우디가 이번에 선보인 신호등 정보 파악은 간단한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차량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아우디의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이다. 향후 아우디의 연결성은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인 V2I를 넘어, 차량 간 소통이 가능한 V2V(Vehicle-to-Vehicle)로 진화할 것이다. 개발이 한창인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V2V와 같은 연결성 관련 기술이 핵심이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연결성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술 및 연구 투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Audi's Traffic light information tells when you'll get the green 2016.08.15 PCWorld
2. New Audi cars can tell you when traffic lights will turn green 2016.08.16 ars TECHNICA
3. Audi relaxes driving with V2I traffic light communication 2016.08.17 Luxury Daily